

<심포지움 자료집>

경안노회 창립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

경안노회 100년의 회고와 미래

임희국 교수 (장신대 명예교수)

경안노회 설문조사를 통해 본
교회성장진단 현장분석

이장석 박사 (이장석교회성장연구소)

일시 : 2022년 3월 17일(목) 오후 1시

장소 : 안동교회 100주년 기념관 영곡아트홀

경안노회 100주년 위원회

경안노회 100주년 기념 심포지움 순서

사회: 김승학 목사 (경안노회 100주년 위원장)

기도 ----- 임보순목사 (경안노회 부회장)

1부: 시상식

1. 50년 찬양대원

- 1) 조동만 장로(영양중앙), 58년(1963~2020)
- 2) 박영길 장로(안동동부), 52년(1957~2008)
- 3) 이희수 장로(녹전), 51년(1971~2022 현재)

2. 40년 교회학교교사

- 1) 박영길 장로(안동동부), 48년(1958~2005)

3. 30년 지휘자

- 1) 김재근 장로(안동), 47년(1962~2008)
- 2) 이필근 장로(안동서부), 44년(1978~2021)
- 3) 권용일 장로(안동), 40년(1980~2022년 현재)
- 4) 조재욱 장로(용상제일), 36년(1986~2022 현재)
- 5) 손향숙 권사(안동), 36년(1983~2022 현재)

4. 30년 반주자

- 1) 권순희 권사(안동서부), 55년(1967~2022 현재)
- 2) 조순교 권사(가구), 51년(1971~2022 현재)
- 3) 최금연 권사(외하), 46년(1974~2022 현재)
- 4) 유명원 권사(안동), 45년(1977~2022 현재)
- 5) 박복순 권사(고천), 44년(1978~2022 현재)
- 6) 강기숙 권사(서후), 39년(1983~2022 현재)
- 7) 김명옥 권사(삼분동부), 37년(1985~2022 현재)
- 8) 민영미 집사(안동), 34년(1988~2022 현재)

2부: 심포지움

- 경안노회 100년의 회고와 미래: 임희국교수(장신대 명예교수)
- 경안노회 설문조사를 통해 본 교회성장진단 현장분석: 이장석박사(이장석교회성장연구소)

경안노회 100년의 회고와 미래

- 한국 장로교회(예장통합)

경안노회 100년, 경상북도 북부지역 장로교회사

임 희 국 교 수

(장신대 명예교수)

오래된 미래 - 역사는 미래를 비쳐주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고전 13:12)

경안노회 100년의 역사는 경상북도 북부지역 장로교회가 걸어온 발자취이다. 이 지역의 장로교회는 20세기 초반 우리나라 근대화 초기에 그 근대화를 선도(先導)했다. 그 이후로 일제강점기, 8.15광복, 6.25한국전쟁, 산업화, 지방자치제 정착 등의 정치사회적 변혁으로 인한 시대적 도전(挑戰)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창의적으로 응전(應戰)했다.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다. 넘어짐과 일어섬이 반복되며 발전해 온 역사였다. 이러한 100여년을 지내온 경안노회는 줄기차게 하나님의 선교에 매진하며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자 했다.

한국 장로교회 137년 역사 속에서 경안노회가 지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전국의 교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이 노회의 지도자들이 교단의 총회를 이끄는 지도력을 나타냈다. 그 지도력은 이 지역의 전통문화의 힘에서 창출되었는데, 퇴계(退溪) 이황선생이 가르친 수양론(修養論)에 기반 한 도학실천(道學實踐)의 선비정신이었다.

1. 1885~1909년: 선교사들의 입국, 경상북도 북부지역 장로교회 설립

1885년 4월 5일(부활절)에 조선 정부의 비자를 받은 미국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 6명이 입국했다. 정부가 허락한 이들의 활동 범위는 교육분야와 의료부분으로 한정되었다. 포교를 위한 선교활동은 금지되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의 선교는 교육과 의료 사역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이 교회 설립이었다. 세월 따라 이 선교는 가르침(학교)-치유(병원)-신앙(교회)의 삼각형 모양으로 정착되었다.

경상북도 북부지역을 방문한 첫 번째 선교사는 배위량이었다. 그는 1893년 4월에 경상북도 북부지역을 찾아왔고, 방문의 주된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장래의 선교를 위해 현장을 답사한 전도여행이었다. 1902년 3월에 대구선교지부 선교사 안의와가 조사 김재수와 함께 북부지역인 안동 등지를 향해 찾아왔다. 그는 -10년 전 배위량의 답사 때와 달리- 적극적으로 복음전도에 힘썼다. 그러나 그의 복음전과가 교회설립으로 연계되지는 않았다. 이 점은 20세기 초반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처음 장로교회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더듬어 찾는 착안점으로 작용한다.

1920년대에 편찬된 『경북교회사』에 따르면, 경상북도 북부지역 처음 장로교회의 설립에 -선교사가 아니라- 토착 신앙인이 주도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구선교지부의 선교사들이 이 지역으로 찾아오기가 결코 수월하지 않았다. 이들의 선교활동 지경은 서북쪽으로 김천, 상주와 예천 남부까지, 또 동북쪽으로 연일, 청송 일부까지, 그리고 북쪽으로 군위, 의성 남부까지였다. 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안동, 영주, 봉화, 영양 등지에는 선교사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다.

1902년부터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는 토착 신앙인들이 교회를 설립하거나 설립을 주도했다. 그들은 권수백, 김성삼, 엄응삼 등이었다. 이들은 당대의 지식인 유생 출신이었다. 이들의 광범위한 활동으로 교회설립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점을 대구지부 선교사들이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1903년에는 경상북도 북부지역 7개 마을에 개신교(장로교회)교인이 12명이었다. 1904년에는 12개 마을에 교인이 33명이었고, 집회처소가 6곳에 문답(학습)교인이 7명이었다. 1905년에는 20개 마을에 교인이 있었고 예배처소가 8곳이었다. 이때 2명의 세례교인, 19명의 문답(학습)교인, 그리고 79명의 새 신자가 있었다(합계 100명). 1906년에는 교인 수가 2배로(200명) 늘어났고, 1907년에는 교인이 약 600명으로 늘어났다. 1908년에는 교인이 1,000명을 넘어섰다. 1906년에서 1908년 사이에 교인 수와 교회설립이 크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복음전파와 교회설립에 자극을 받은 미국 장로교 북장로회 선교부가 1906년 안동에 독자적인 선교지부를 설치해야할 것으로 파악했고, 안동에 선교지부를 개설하기로 1908년 결정했다.

2. 1909~1919년: 안동선교지부 개설, 3.1운동을 주도한 교회들

안동 선교지부의 설치에 대구 선교지부를 모본삼아 추진되었다. 대구의 선교사역은 크게 보아 세 가지 분야로 전개되었다. 앞에서 언급한바, 복음전파를 통한 교회설립, 교육선교를 통한 학교설립, 의료선교를 통한 병원설립이었다. 1909년에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는 선교사 오월번, 의료선교사 벌리추, 그리고 조사 김영옥을 선교지부가 개설되는 안동으로 파견했다. 맨 먼저, 부지매입의 작업이 착수되었다. 그 다음엔 선교사 거처를 마련했다.

1909년 7월까지 안동에서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으나 교인들은 있었다. 이들은 영주 지곡 교회에 다니며 예배드렸는데, 강복영, 권중락, 원화순, 정선희, 원홍이 등이 지곡교회 교인이었다. 그해 8월 8일(둘째 주일)에 안동의 서문밖(현재 안동교회앞)에 있는 기독교 서점(서원)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안동교회가 시작되었다. 이 예배에 참석한 교인은 김병우(매서인), 강복영, 권중락, 원화순, 정선희, 원홍이, 김남홍, 박끝인 등 8명이었다. 그로부터 1년 동안에 교인이 94명으로 불어났고, 서점 예배실이 협소하여서 넓은 공간으로 옮겼는데, 선교사 오월번의 집에서 예배드리게 되었다.

조금 후, 안동선교지부의 선교사 3명은 안동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구획하고 각자의 구역을 분담해서 사역했다. 1911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오월번이 안동을 포함해서 그 북서쪽 구역을 맡았고(영양서현, 봉화, 순흥, 풍기, 예천, 문경, 함양, 상주북편, 영주), 권찬영이 안동의 남동쪽 구역을 맡았으며(예안동편, 영양, 영해, 영덕, 진보), 그리고 연위득이 안동의 남쪽 구역을 맡았다(청하서편, 청송, 안동남부, 의성북편).

오월번의 부인 새디는 1910년 6월 16일에 여성 성경공부반을 개설했다. 75명이라는 적지 아니한 여성이 모였다. 유럽전통이 깊은 고장에서 여성의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였는데, 여성들만이 성경을 배우는 모임을 조직한 것은 전통을 깨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

도였다. 그날 이후로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여성 성경공부 모임이 열렸으니, 가부장 사회 질서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이들만의 성경공부 모임은 여성 해방이 내포된 집회였다. 성경공부가 새디의 집에서 모였기에 이를 통해 서양의 생활문화도 자연스럽게 소개되었다. 온돌방에 딸린 아궁이 부엌만을 경험했던 지역 여성들은 서양식 부엌과 침대생활을 하는 선교사 가정을 놀라움 속에서 구경했다. 그 무엇보다도 일상의 식생활문화가 크게 와서 닿았다. 밀가루 빵, 케익, 도우넛, 푸딩, 과일 잼(딸기, 살구, 사과), 젤리(자두, 파인애플), 건포도, 비스킷, 설탕, 우유와 분유, 토마토 소스, 호박 파이 등을 그 시대의 안동 여성들이 처음으로 맛보았다. 대부분 난생 처음 먹어보는 달콤한 맛이였다. 입과 혀에 와 닿는 서양 음식의 맛으로 그 문명을 처음 접했다. 이 모든 음식은 미국에서 주문하여 들여온 것이였다. 새디는 텃밭에서 재배하는 옥수수, 토마토, 아스파라가스, 당근, 양배추 등을 소개하고, 사과나무 묘목도 소개했다.

이렇게 새디의 집에서 멋진 신세계를 경험한 안동의 여성들은 신여성성이 되어갔다. 신여성들은 교회에 다녔고 그리고 1911년에 개교한 계명학교에 다녔다. 여성 성경공부, 교회생활, 신식 계명학교 재학이 차례로 여성에게 새로운 지식과 의식을 불어 넣으면서 기독 신앙인으로 양육했다. 이 지역의 장로교회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기, 학교 설립을 통한 근대화, 신식의술을 통한 중환자 살려내는 병원 등으로 정착되어 갔다.

이 지역에 장로교회가 뿌리를 탄탄하게 내리는 결정적인 계기는 1919년 3.1운동이였다. 1919년 당시 경북 북부지역 장로교회는 93개였다. 이 중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한 교회는 42개였다. 핵심 역할을 한 교회 지도자는 조사와 권서였다. 평소에 선교사를 돕는 평신도 교역자였던 조사는 자신 맡은 마을의 사정을 가장 많고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들의 이름을 열거하면. 강우근, 강원백, 권수백, 김기수, 김병우, 김세영, 김원휘, 김익현, 김종숙, 박문찬, 박장호, 이상동, (김충환, 이태학)이였다. 이들이 지역 3.1운동에서 가장 활발하게 참여했다. 이들은 체포되어서 1년 6개월~2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였다. 또한 권서로서 3.1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민태규와 정규하였다. 안동의 3.1운동은 유림과 개신교(장로교회)가 연합하여 만세시위를 일으켰다. 예안에서 일어난 만세시위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였다.

3. 1919~1934년: 경안노회 설립, 3.1운동 이후의 교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0회 총회(1921. 9.)는 경북노회로부터 경안노회 설립에 대한 헌의를 받아들여서 허락했다. 영남지역에서 장로교회의 노회가 조직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11년 12월 6일 경상남북도의 '경상노회' 조직회가 부산진예배당에서 회집되였다. 이때 안동지역에서 참석한 총대는 오월번, 연위득, 김영옥이였다. 약 5년 후, 경상노회(제12회)가 경상남도과 경상북도로 분립되어서 '경북노회' 조직회가 1916년 6월 22일 대구성경학당에서 회집되였다. 1921년 연말에 경안노회 조직회가 경북노회에서 분립되어 회집하였다. 제1회 경안노회가 1922년 1월 18일 안동읍 법상동교회(현재 안동교회)에서 회집되였다. 참석회원은 23명이였다.

1920년대 초반에는 일제가 -3.1운동(1919)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의 정책을

바꾸었다. 일제는 한국인을 회유하려는 기만적인 문화통치를 내걸었다. 이에 대응하는 개신교는 실력양성운동의 큰 틀에서 교육구국운동, 물산장려운동, 국산품애용, 금주금연운동, 농촌운동, 신간회조직 등을 전개했다. 그런데, 1919년에 장로교회 총회는 '진흥운동'(振興運動, The Forward Movement)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주일학교, 사경회, 성경통신, 기독교청년면려회 등으로 전개되었다. 경안노회 안동에서 이때 설립된 인노절기념성경학교는 특별했다고 본다.

1928년에 장로교회 총회(제17회)는 농촌부를 설치했다. 설치배경은 이러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의 여파로 경작권에서 배제된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한 상황, 또 그들의 소작조건이 악화되어서 소작료가 오르고 지주의 횡포가 심해지고 또 부채가 늘어난 상황. 게다가 1920년대의 잦은 천재지변(홍수, 가뭄, 서리피해 등)이었다. 장로교회 총회 농촌운동의 계기는 1928년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선교대회에 참석한 장로교회 총대들(선교사 마켓과 정인파)이 그 자리에서 피폐한 한국 농촌 실상을 비로소 훤히 알게 되었고, 귀국한 직후에 총회에 농촌부 설치하도록 건의했다. 장로교회의 농촌운동은 주로 '농촌 계몽'과 '농사개량' 그리고 '농촌지도자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1928년 12월에 열린 경안노회 제14회 정기노회는 '농촌부 연합회'를 조직했다. 이에 "각 교회에 농촌부를 설치케 하고, 각 시찰 안에 (농촌부연합회)의 지회를 두기로 하며, 노회 안에 농촌부연합회"를 조직했다. 경안노회 농촌운동의 우선적인 목표는 "피폐한 농촌경제를 부활"시키는데 있었다. 경안노회는 1929년부터 '경안농원'을 운영하며 농촌운동을 전개했다. 식량부족(특히 춘궁기에), 농가수입의 절대 부족, 소작인 증가로 말미암은 농토부족과 이농현상, 아이들이 전염병(특히 온역)에 걸려서 고생하는 현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노회가 "피폐한 농촌을 구제하고 다 죽게 된 농민들을 부활시키고"자 경안농원을 운영했다. 1934년에 경안노회는 한국선교50주년 회년기념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4. 1934~1945년: 일제의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정책, 무너진 공(公)교회

'만주사변'(1931)을 일으킨 일제가 본격적으로 중국대륙을 침략했다. 일제는 또 '상해사변'(1932)을 거쳐서 '중일전쟁'(1937)을 일으켰다. 마침내 일제는 미국 등을 상대로 '태평양전쟁'(1941)을 일으켰다. 전쟁을 추진하기 위해 일제는 국가 전체를 전시체제로 바꾸고 국민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이 시기에 일제는 조선(한국)에 대해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 첫째로, 일제는 조선을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활용하고자 농공병진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조선-만주의 블록경제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둘째, 일제는 조선 사람들에게 전쟁 협조를 얻어내고 또 조선을 일본에 완전히 동화(同化)시키려는 목적으로 '황국신민화(이하 황민화)정책'을 추진했다. 이 동화정책은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앞에 내세우며 추진되었는데,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만드는 동시에 조선인의 민족정신을 말살시키고 '2등일본인'으로 만들어서 전쟁에 활용하자는 의도가 들어 있었다. 이와 함께 일제는 천황과 국가에 헌신적으로 충성하게 하는 국체명징(國體明徵)과 헌신보국의 정신으로 어떠한 시련에도 인내하고 목적을 관철하는 인고단련(忍苦鍛鍊) 등의 강령을 정해서 조선인을 완전한 황국신민으로 만들고자 했다. 황민화 정책은 '조선교육령개정'(교육), '신사참배강요'(전체주의

국가이데올로기), 그리고 ‘창씨개명’(일제의 신민화)이 기본 골격으로 구성되었다.

일제의 신사참배강요에 들어있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는 장로교와 크게 갈등을 빚게되었다. 한국 장로교는 1938년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의 압력을 더 이상 버티내지 못하고 굴복하게 되었다. 그 해 2월 9일 장로교 평북노회가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으로 인정하고 참배를 결의하였다. 같은 해 9월 9일에 교단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전국 27개 노회(조선 내 23, 만주 4) 가운데서 17개 노회가 평북노회의 뒤를 따라갔다. 경안노회는 그해(1938년) 8월 30일 임시노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다.

신사참배 가결 이후, 장로교회의 예배가 무너졌다. 예배의 첫 순서에 동방요배, 곧 일제의 친황을 향해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십계명 제1계명을 어겼다. 유린당한 신앙이었다. 둘째로, 헌금이 무너졌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성도의 헌금이 전쟁 군수물자 구입으로 사용되었다. 심지어는 장로교회는 일제의 전투기 구입(조선 장로회)에 헌신했다. 교회가 철두철미 태평양 전쟁에 동원되어서 그 시너 노릇을 해야 했다. 셋째, 기도가 무너졌다.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여야 하는데 일제의 전쟁승리를 위해 기원했다. 넷째, 교인들 가정의 유기 늦그릇, 교회의 종까지 일제의 전쟁놀음을 위해 갖다 바쳤다. 다섯째, 예배당 건물을 매각하여 그 돈을 일제의 전쟁 비용으로 바쳤다. 예컨대, 안동의 안기교회(현재 서부교회)가 매각처분되어서 전쟁비용에 바쳤다.

이렇게 갖다 바치고 시너노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 개신교의 교파들이 1945년 7월 19일 “일본기독교조선교단”(日本基督教朝鮮教團)으로 완전 통합되었다. 장로교 대표 27명, 감리교회 대표 21명, 구세군교회 대표 6명, 또 다른 5개의 교파 대표 각 1명씩 모여서 새 교단의 성립을 발표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신앙인들 가운데서 50여명이 옥사하여 순교자의 반열에 들었다.

5. 1945~1960년: 1945년 8.15광복, 경안노회 복구, 교단 분열

1945년 8.15광복의 그 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11월 20일에 경안노회 제39회 ‘복구회’가 안동교회에서 회집되었다. 참석회원은 목사 19명과 장로 34명, 도합 53명이었다. 경안노회 복구회는 다음과 같은 선포로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던 하나님께서 조선 백성을 사랑하시사 자유와 해방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일본 제국주의 강력한 탄압을 받아 1943년으로부터 1945년까지 3개 성상이나 (경북)교구회에 속했던 조선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의) 제39회 복구회가 1945년 11월 20일 하오 7시에 안동읍법상동예배당에서 회집하였다.” (『경안노회 회록』 제39회(1945.11.20.)

이번 노회에서 목사 이원영이 노회장으로 피선되었고 또 목사 김광현이 부노회장으로 피선되었다. 그 다음, 노회는 일제의 신사참배강요를 거부하고 저항함으로써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과제가 나타났다. 그것은 목회자 양성이었다. 재건된 교회들은 많은데 이 교회들을 교역할 교역자가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단기 성경학교’가 시작되었다. 이 학교가 발전하고, 1946년 9월 4일 수업기간 3년 남녀공학의 ‘경안고등성경학교’(교장 이원영)가 개교했다. 이 학교는 오늘날 경안대학원대학교의 전신이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 한국을 떠났던 선교사와 그 자녀들이 1945년 말부터 돌아오기 시작했다. 선교사들 가운데서 옥호열이 1946년 9월에 경상북도 안동으로 왔다. 1948년 1월에 미국 장로교 북장로회 한국 선교부가 다시 조직되었다.

1949년 11월 제46회 경안노회 강원도 지방 교회의 총대를 임시회원으로 허락했다. 이와 더불어 강원도 삼척군과 목호지역 장로교회들이 경안노회의 시찰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경안노회의 시찰구역이 변경되어 새로 조정되었다. 모두 8개 시찰이었는데, 중앙시찰(안동군 일원과 영주군 오운과 지보), 북편시찰(영주군 일원 단 오운 지보 제외), 봉화시찰(봉화군 일원), 영덕시찰(영덕군 일원), 동편시찰(영양군 청송군 일원), 서편시찰(예천군 문경군 일원), 남편시찰(의성군 일원), 그리고 강원시찰(삼척군과 목호지방)이었다.

1950년에 이른바 6.25전쟁이 발발했다. 안동의 약 90%정도가 파괴되었다. 경안고등성경학교는 본관만 남겨 놓고 남녀 기숙사가 폭격으로 완전히 부서졌고, 바로 결의 성소병원도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다. 요행히도 안동중앙교회(현재 안동교회)가 폭격에서 살아남아 홀로 외톨이처럼 서 있는 모습이였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굶주림이 심각했다. 선교사 반피득이 미국 구호단체 UNCACK(United Nation Civilian Assistance Corps Korea)의 지원을 받아 옷가지 50상자와 밀가루 80포대를 급히 가져왔다. 선교부는 한 두 트럭분량의 곡식(밀, 보리 등)을 샀다. 그리고 무료급식소 다섯 곳을 만들고 날마다 약 5,000 명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다. 무료급식소에서는 전도용 소책자가 함께 비치되었고, 이곳에서 간단히 예배드렸다.

6.25전쟁 기간에 부모 잃은 아이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경안노회는 고아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1952년 ‘경안신육원’을 설립했다. 전쟁고아들은 이곳에서 신앙을 바탕으로 한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받았다. 또한 경안노회는 수많은 전쟁미망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기독자매원’을 설치하였다. 전후 복구 작업에서, 경안노회는 1951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의 지원으로 예배당을 복구할 수 있는 “(전쟁) 피해복구자금”을 결의했다. 노회는 복구자금 분배위원회를 조직하여 교회의 피해정도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복구비를 산정했다. 같은 해 9월에 경안노회는 영주에 중등교육기관인 ‘경안중학교’를 개교했다. 3년 후, 1954년 봄 안동에 ‘경안고등학교’(교장 반피득)가 설립되었고 4월 9일 첫 입학식을 거행했다.

1950년대에 한국 장로교회는 세 차례 분열되었고, 그 결과 4개의 교단으로 쪼개졌다. 제1차 분열로 고신교단이 생성되었고, 제2차 분열로 기장교단이 생성되었고, 1959년 제3차 분열로 예장합동교단과 예장통합교단이 각각 생성되었다. 제1차 교단분열과 제2차 교단분열을 겪는 동안에 교단의 대다수 총대들은 교단분열의 원인이 신사참배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번 총회기간에 가장 먼저 그 죄를 깊이 뉘우쳐야 한다고 보았다. 더욱이, 고려신학교 측 교회를 총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신사참배 죄를 통회하며 성명서를 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54년 장로교회 제39회 총회에서 이원영이 총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부총회장으로 한경직이 유임되었다. 총회 장소는 안동의 안동교회였다. 전국의 총대들이 안동으로 모였다. 이번 총회는 1938년(제 27회)에 결의한 신사참배결의를 취소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하여 위원회(이원영·명신흥·권연호)를 선정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참회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게 했다. 위원회는 5개 항목을 만들어서 총회에 제출했다. 1) 신사참배 취소 성명을 문서로 작성해서 전국 교회에 공포하고, 2) 총회 기간에 (총대 전원(全員)이)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의 죄 사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3) 위원 5인을 선택해 신사참배 주동자들을 심사한 후, 해당 노회에 통지해 처벌하도록 할 것, 4) 신사참배로 순교한 성도의 유가족을 위해 총회 기간 중에 한차례 연보하고 6월 첫 주일에 전국 각 교회가 연보해 유족에게 위문금을 드릴 것, 5) 6월 첫 주일을 통회주일로 정하고 각 노회를 통해 전국교회가 하루 금식통회하며 속죄를 위해 기도할 것 등이었다. 총회는 이 가운데서 4개 항목을 받아들여서 실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신사참배 취소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39회 총회는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의교회에서 회집한 제27회 총회결의인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하고 추히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황국신민으로써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의 성명에 대해 그 결의는 일제의 강압에 못 이긴 결정이었으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계명을 범한 것임을 자각하고 남부대회가 신사참배 회개운동을 결의 실행했으되 남북통일 총회가 아니었던 고로 금번 남북이 통일된 본 총회는 이를 취소하고 전국교회 앞에 성명함. (1954년 5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이원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회의록』 제39회(1954))

그 이후, 1959년 장로교회 제3차 교단분열 당시, 경안노회는 회장 김광현 목사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노회 소속 교회들이 흔들림 없이 연동측(예장통합)에 머물렀고 이와 동시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로 모였다. 또 이것은, 수년 전 고신교단과 기장교단이 각기 생성된 두 차례의 교단분열을 수습하고 화해와 재결합을 도모한 제39회 안동 총회의 정신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있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1954년 경안노회에서 분립된 의성·청송지역의 경중노회에서는, 경안노회와 달리, 제12회 정기노회가 1960년 3월 15일 도리원교회에서 회집되었으나 연동측과 승동측이 격하게 대립했다. 그 결과, 노회 소속 대다수의 교회가 승동측으로 떠났다. 노회가 둘로 쪼개져서 분열되었다. 이에, 소위 연동측 경중노회는 그 이튿날(3월 16일) 의성 북부교회에 속회로 모여서 임원을 선출했다.

6. 1960~1990: 산업화 시대와 지역 교회의 변화

1960년대 초반에 경안노회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먼저는, 교단 분열의 후유증이 매우 컸다. 한 해 전(1959)에 장로교회 교단이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되었고, 김광현 목사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지역의 교회들이 크게 흔들림은 없었으나 몇몇 교회에서는 같은 교회 교인들이 심하게 다투며 분열했다. 또 몇몇 교회는 이웃 교단(합동)으로 떠나갔다. 이로 말미암은 고통이 노회 안에서 몇지 않았다. 그 다음엔,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피해가

교회에도 덮쳤다. 1959년 태풍 ‘사라호’가 교회 건물 등을 파손했고, 1960년대 초반에는 극심한 가뭄이 흉작을 초래해서 농민 교인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었다. 지역의 교회들과 교인 대다수는 삶의 자리가 가난한 농촌이었고, 농어촌 교역자의 생활을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안동선교지부가 재정을 지원했다(500불). 이같이 어려운 상황이 경안노회 창립 40주년 기념예배(1961.11.28.)의 설교 제목 “40년 광야생활”(본문 행 7:30-34, 설교자 김진호 목사)에서 엿보인다.

1960년대 중반이래로 지역의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을 조금씩 극복해 나갔다. 부흥회 집회를 통해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는 성경을 배우는 사경회가 교회 집회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오전 사경회 성경공부가 여전히 중요했고 그런데 저녁에 부흥회로 모이는 집회가 더 강조되었다. 부흥회 집회는 교인들에게 영적인 힘을 북돋았고, 그 힘으로 태풍으로 유실된 교회를 복구하거나 예배당을 신축하고 보수하고 교회 종각을 세웠다.

산업화 시대인 1960년대 중반부터 약 30년 동안 한국 개신교는 놀라운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교회 성장은 주로 대중 전도집회를 통해 일어났다. 또 교회 성장의 내용은 교인 수 증가와 교회재정 확대였다. 그런데, 교회 성장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간 농어촌 지역에는 교회가 쇠퇴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산업화-근대화와 맞물려 황토건물과 황토담장이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로 바뀌었다. 부흥회는 전도운동을 일으켰고 이에 교회가 없는 마을에 개척 전도가 활발해졌다. 또한 노회산하 일반 중고등학교와 성경구락부의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신앙 부흥이 일어났다.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룰 희망의 새싹이 돋았다.교회 부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안노회의 전통인- 사회봉사로 확장되었다. 신육원, 성혜원(예천), 성노원 등의 기관이 교회 경제 상황의 향상과 더불어 활성화 되었다.

평신도 김수만이 1945년 이후 개곡리의 개곡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교회를 개척 설립했다. 그의 복음전파와 교회 개척을 안동교회의 담임 김광현 목사가 주목했다. 그는 1952년경 길안(吉安) 지역에 “개척 전도사업”을 하려고 구상하였다.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오대교회 하나 뿐 이었다. 이에 김광현은 안동교회가 길안 지역 “전도인”을 세우고 파송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그는 평신도 전도인 김수만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안동교회가 길안 지역에 파송한 전도인으로 교역하게 되었다. 그는 길안면 80리 여러 마을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언했다.

경안노회 내 지역 교회들이 부흥하자, 노회는 지역 시찰회를 9개로 늘였다: 안중-, 안서-, 안북-, 영북-, 영남-, 서편-, 봉화-, 영덕-, 동편시찰 등. 1972년 3월에는 경안노회와 경중노회가 합동하여서 노회가 열렸다. 경안노회가 경중노회를 흡수통합하였다. 제100회 경안노회(노회장 김기수)를 맞이한 1976년 9월에 이를 기념하는 기념예배를 드렸다. 또 제100회 노회를 기념하여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경안노회에 속한 경북 북부지역 교회들이 날로 흥왕하여 발전하자, 노회를 분립하자는 안이 개진되었다. 제114회(1983.9) 노회는 노회분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조사하고자 교세 통계조사를 실시했다. 또 노회가 2개로 양분될 경우에 그 중심지역은 안동과 영주가 될 것이므로, 영주를 중심으로 한 예천-, 영북-, 영남-, 봉화시찰(4개 시찰)의 교세를 파악하고 또 안동을 중심으로 한 안중-, 안서

-, 안북-, 의성-, 청영시찰(5개 시찰)의 교세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렇게 해서 양분되는 2개 지역 교회들의 교세가 엇비슷하게 균형을 이루면 노회를 분립하기 했다. 노회분립 준비위원회(1984.1.23)는 2개로 분립되는 노회의 명칭을 “경안노회”, “영주노회”로 각각 정했다. 이로써 안동 중심의 노회는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 영주 중심의 노회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제115회(1984.3.6.) 노회에서 경안노회와 영주노회가 분립되었다. 3월 6일 오후 2시에 안동교회에서 경안노회가 모여서 개최하여 분립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했다. 그 뒤를 이어 곧바로 영주노회(소집책임 조석규 목사)는 영주제일교회로 가서 회무처리를 하였다.

산업화시대에는 흐르는 강물도 자원으로 파악되었고, 댐 공사가 안동에서 1970년대 초반에 착수되었다. 낙동강 상류인 안동에는 안동댐과 임하댐이 건설되었다. 댐건설의 목적은 낙동강 하류지역 도시(대구, 포항, 구미, 부산, 창원, 울산 등)에 식수를 공급하고, 전기를 발전하고, 그리고 관광산업을 일으키기 위함이었다. 안동댐이 1971년 4월에 착공되었고, 5년 후, 1976년 7월경에 완공되었다. 댐 높이 83m 길이 612m였다. 댐건설은 안동의 지형을 바꾸었고 이와 함께 안동 사람들은 적어도 세 가지 유산을 잃어버렸다. 고향산천을 떠나야 했고, 조상에게 물려받은 농토와 집 등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전통문화가 수몰되었다. 안동의 와룡면, 예안면, 도산면, 임하면, 월곡면, 녹전면 등 6개 면 54개 마을이 물에 잠겼고, 이 지역 주민 2만 여명이 조상대대로 농사짓고 살아오던 마을을 떠나야 했다. 논밭 7백33만2천여 평과 집 3,000여 호가 수몰되었다. 댐건설로 수몰된 지역의 마을 곳곳에는 교회가 있었다. 그 교회들도 물밑으로 가라앉거나 높은 지대로 이진/이동 했다.

	교회명	댐건설 이후의 변화
1	섬촌교회	교회 소멸, 교인들이 이웃 교회로 편입되었을 가능성
2	도산교회	교회 이동
3	남미교회	교회 소멸, 교인들은 예안교회로 이동
4	예안교회	교회 이동
5	다래교회	교회 소멸, 교인들이 이웃 교회(성결교)로 편입되었을 가능
6	귀단교회	교회 이동 인계교회로 유지
7	마동교회	교회 소멸
8	석동교회	댐 건설 이전에 이미 교회 소멸

7. 1990~2021년 현재: 지방자치 시대, 연대와 동반성장

1991년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선거가 부활되었다. 3월에 구·시·군의원이 선거로 선출되었고, 6월에 시·도의원이 선거로 선출되었다. 1995년에는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선출되었는데, 이로써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되었다. 대규모 지방행정구역 개편도 단행되었다. 앞에서 서술한바, 1960년대 이래로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통해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했다. 산업화에 발맞춘 인구의 대도시집중은 교회의 양적 성장(교인 수, 재정)을 촉진했다. 교회 성장은 그러나 대도시에 국한되었다. 이에 대도시 교회와 농어촌 교회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대도시교회는 교인 증가와 재정 확대에 따른 물량적 성장을 추구하고, 농어촌 교회는 청장년층의 도시이주로 인한 교인 감소와 노령화 그리고 재정이 어려워졌다. 그런데, 농어촌의 사정이 이러한데도, 농어촌 지역목회에 뜻을 품은 목

회자들이 이곳으로 가서 교회와 마을을 섬겼다.

1990년대 초반에 경안노회는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에 시동을 걸었는데, 교회재정 악화로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교역자들이 상부상조하고 연대했다. 경안노회 내의 교회들 대다수가 농촌 지역에 있으므로 산업화의 열매인 경제성장에서 지리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있는 농촌 교회들은 재정 자립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청장년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교인의 고령화가 걱정거리로 등장했다. 이렇게 교회 재정의 어려움과 교인 고령화는 교역자에게 엄청난 부담의 무거운 짐이었다. 개별 교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짐이 아니었다. 교역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민하는 노회의 지도자들이 특단의 정책을 구상했다. 미자립교회 교역자의 경제적 고통을 함께 나누고 교역자들이 상호 연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경안노회는 1990년에 교역자의 최저 생활비 보전을 위해 ‘교역자생활비평준화연구위원회’(위원장 김기수)를 조직했다. 그리고 노회 교역자들의 경제적 상부상조(相扶相助)가 실행되었다.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 배경에는 (대)도시 교회와 농어촌 교회의 재정 격차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교단 총회 산하 내 수 천 개교회의 교역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현실인식이 작용했다. 교단의 제86회 총회(2001년)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2005년부터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를 실시하자고 결의했다. ‘교회자립위원회’가 조직되어 출발했다. 2016년 이후로 교회자립위원회가 ‘동반성장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4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교단) 제79회 총회가 여성 안수를 가결했다. 한국장로교회에서 남녀평등이 법제화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것은 총회 총대(남성)의 의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고 또 총회장 김기수 목사(경안노회 안동교회)의 여성 안수 제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서 총회의 여론을 선도한 결과였다고 평가된다.

2012년도에 장로교 교단(예장통합) 총회(제97회)가 교세 감소를 보고했다. 이미 잘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총회가 그 사실을 공식화 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작지 않았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어린이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유명무실화되어가는 상황이 다음 세대 교회를 암울케 하는 상황이었다. 백발 노인들만 남아 있는 교회를 그려지게 했다. 안동의 경우, 1995년에 45개였던 지역의 초등학교가 2000년에 31개로 줄었다. 5년 동안 초등학교 14개가 없어졌다. 초등학교 학생 수 역시 1995년에 17,797명이었는데 2008년에 10,867명으로 그동안 6,930명 감소했다. 초등학교 졸업생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진학하므로, 중고등학교의 변화도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였다. 이것은 지역의 저출산과 이농 현상을 반영했다.

경안노회는 2014년 10월 제176회 가을노회에서 ‘교회성장운동본부’를 조직하기로 했다. 노회 임원회는 본부장을 임명했고, 이어서 전권을 부여받은 본부장이 임원과 분과장을 조직해서 임원회에 보고했다. 2015년 4월 봄 정기노회(제177회)는 본부장(김승학)과 임원 및 분과장을 공표했다. 이어서 노회 산하 7개 시찰회에서 성장운동본부 임원과 분과장이 조직되었다. 이렇게 조직이 완료된 경안노회 교회성장운동본부가 7월 16일(목)에 기도회를 가짐으로써 출범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2017년 10월, 경안노회 제182회기에서 '노회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본 노회 산하 교회들의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교회 개혁위원회였다. 지역의 농촌 교회에는 노령화와 교인 감소가 심화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일평생 곳곳하게 농촌 교회를 섬긴 제직(항존직)들이 조만간에 은퇴하게 되면 이 교회를 물려받을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침체되어서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진 농촌 교회의 대안을 수립하고자 노회발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경안노회 제189회(2021.4) 임원회는 임원회 산하에 3개 협의회를 두어 지역 교회들의 생존방안을 모색했다. 이것은 노회발전위원회가 제안하고 노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본다.

(1)교회성장지원협의회:

- ① 관련부서 : 국내선교부 · 사회봉사부 · 농촌선교부 · 교회동반성장위원회
- ② 인력부족 · 재정부족이 심각한 교회들을 적절하게 도와서 그들의 생존과 부흥을 논의

(2)교회생존전략 협의회:

- ① 관련부서 : 정치부 · 국내선교부 · 교회동반성장위원회
- ② 재정 자립이 어려운 본 노회는 다른 노회와 교회(경북노회, 서울강남노회, 빛과 소금교회 등)의 지원으로 견뎌오던 중, 농촌 인구가 나날이 감소됨에 따라, 재정부족과 인구감소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

(3)영성회복훈련협의회:

- ① 관련부서 : 교육자원부 · 훈련원운영위원회
- ② 코로나19로 대면예배가 멈추어버린 현실(2020년)에서 교회는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 두기, 비대면 예배, 거리를 띄워 지정된 좌석에 앉기 등 방어적 ·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교회가 복음적 · 선교적 · 목양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먼저 교역자들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교역자들의 목회가 갱신되어야 할 것이다. 교역자의 영성과 씬을 통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새 길을 찾아가는 협의체.

한국 장로교회(예장통합)

경안노회 100년, 경상북도 북부지역 장로교회사(가제)

기획: 경안노회100주년준비위원회(위원장 김승학)

집필: 임희국

***단행본 집필 목차(안)**

제1장 경안노회, 한국 장로교회, 세계 장로교회

I. 장로교회 경안노회

II. 한국 장로교회의 생성과 발전 : 공의회, 독노회, 총회

1. 장로회공의회(公議會, council) 조직
2. 독노회 설립 - '조선전국독(립)노회'(朝鮮全國獨(立)老會)(1907)
3. 교단총회의 출범(1912)
4. 장로교회의 헌법원리

III. 세계 장로교회 : 16세기 스위스 취리히에서 19세기까지 미국까지

제2장. 선교사들의 입국, 경상북도 북부지역 장로교회 설립(1885-1909)

I. 선교사 입국

1. 교육과 의료 영역으로 제한된 첫 선교 사역(1885)
2. 네비우스(John L. Nevius)의 선교원리를 채택한 선교정책(1890)
3. 선교사 배위량의 경상북도 북부지역 답사(1893)
4. 경상북도 대구에 미국 장로교 북장로회 선교지부 설립(1899)

II. 경상북도 북부지역 유생들의 인식변화

III. 경상북도 북부지역 복음 전파와 장로교회 설립

1. 선교사 안의와의 지역 방문(1902)과 복음전도
2. 처음 교회들의 설립
3. 자생적 교회설립
4. 지금까지 알려진 처음 교회들의 설립

제3장. 안동선교지부 개설, 3.1운동을 주도한 교회들(1909~1919)

I. 배경

1. "교계예양" - 선교구역 분할협정
2. 빠르고 활발한 복음 전파

II. 안동 선교지부 개설 과정

1. 지역에 온 선교사들
2. 선교지부 부지 매입
3. 선교사 주택과 선교지부 신축

III. 첫 선교 사역

1. 선교사들의 사역 분담
 2. 여성을 위한 여성 선교사의 사역
 3. 설교회(說教會), 교회 성립
 4. '성경장로교회' 형성
 5. 기독교 사립학교 설립
 6. 치유 선교사역: 성소(聖蘇)병원
- IV. 3.1운동을 주도한 교회
1. 개요
 2. 전국 각 지역에서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한 장로교회
 3. 경상북도 북부지역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한 장로교회:
안동·의성·영양·청송·영주·봉화·예천 등
 4. 유생들과 교회가 협력하여 일어난 독립만세시위
 5. 3.1운동 직후, 그리스도인이 된 유생들
 6. 3.1운동의 산물로 설립된 섬촌교회(剡村教會)

제4장. 경안노회 설립, 3.1운동 이후의 교회(1919~1934)

- I. 경안노회 설립
1. 노회 조직을 위한 회집
 2. 제1회 경안노회(1922.1.18.)
- II. 3.1운동 이후, 교회가 나아간 새 길
1. 실력양성운동: 교육구국운동, 물산장려운동, 국산품애용,
금주금연운동, 농촌운동, 신간회
 2. 교회 진흥운동: 주일학교, 사경회, 인노절기념성경학교, 성경통신과, 기독교청년면려회
 3. 농촌운동
- III. 한국 선교 50주년 회년기념대회(1934)

제5장. 일제의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정책, 무너진 공(公)교회(1934-1945)

- I. 황국신민화 정책
- II. 위기에 처한 교회
1. 신사참배강요
 2. 농촌운동 중단, 총회의 농촌부 폐지
 3. 주일학교의 쇠퇴
 4. 장로교의 노선갈등, 연합운동 해체, 국제 협력관계(에큐메니칼) 단절
- III. 무너진 공(公)교회
1. 장로교 제27회 총회(1938)의 신사참배 결의
 2. 신사참배 결의 이후의 장로교
 3. 경안노회의 신사참배 결의, 그 이후
 4. 일본기독교에 편입회 한국 개신교
 5. 순교자와 남은 자들

제6장. 1945년 8.15광복, 경안노회 복구, 교단 분열(1945-1960)

- I. 8.15광복, 새 나라 건설 기대, 미군정의 시작
 - 1. 새 나라 건설 준비에 참여한 교회지도자들
 - 2. 미군정체제와 교회지도자들
- II. 장로교회 재건, 경안노회 복구
 - 1. 장로교회 재건
 - 2. 경안노회 복구, 무너진 교회들 재건
 - 3. 교역자 양성: 경안고등성경학교
 - 4. 선교사 귀환
 - 5. 노회 지경(地境) 확대: 강원시찰
- III. 새로운 시련
 - 1. 장로교 교단 내 갈등: 신사참배 문제, 신학 노선
 - 2. 무장 인민유격대의 교회 공격
 - 3. 6.25전쟁 기간(1950-53)의 지역 교회, 경안신육원과 기독교자매원 등 설립
 - 4. 전후 복구: 교회, 학교
- IV. 장로교 교단 분열
 - 1. 제1차 분열: 고신(고려신학교)교단 생성
 - 2. 제2차 분열: 기장(기독교장로회)교단 생성
 - 3. 장로교 제39회 총회(1954년), 안동교회에서 개최-신사참배 취소성명
 - 4. 제3차 분열: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 5. 경안노회와 경중노회의 상황

제7장. 산업화 시대와 지역 교회의 변화(1960-1990)

- I. 사회변혁을 일으킨 산업화, 지역 교회들의 상호 연대
 - 1. 군사정권체제와 경제개발
 - 2.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변화
 - 3. 삼중고를 극복해나가는 교회들의 연대: 교단 분열, 천재지변, 경제적 가난
- II. 교회 부흥운동
 - 1. 배경: 대도시의 교회 성장, 농어촌의 교회 쇠퇴
 - 2. 농촌과 농촌교회를 탄식한 권정생, 김영원
 - 3. 경안노회의 교회 부흥 운동
 - 4. 여전도회연합회와 성소병원의 교회개척 전도
 - 5. 길안지역 복음 전도와 교회 설립
- III. 인재 양성, 교회의 사회봉사
 - 1. 기독교 학교의 미래 지도자 양성
 - 2. 환자치유, 돌봄과 섬김
- IV. 안동댐 건설로 사라진 마을과 교회
- V.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 1. 국가주의와 전체주의이데올로기에 항거
 - 2.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참여

제8장: 지방자치 시대, 연대와 동반성장(1990-2021년 현재)

I. 1990년대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사회 변동

1. 지방자치의 부활과 정착
2. 북방정책, 햇볕정책
3.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경제 환란,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경제
4. 역사바로세우기, 한국 문화의 세계적 공감대 형성

II. 지역의 변화와 경안노회의 새로움

1. 경제적 상부상조(相扶相助): 교역자생활비평준화운동, 교회자립운동, 교회동반성장운동
2. 경상북도 도청 이전과 경안노회의 '(도청)신도시선교정책'
3. 북한선교운동과 한반도 통일운동
4. 여성 안수
5. 생명살리기10년운동,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운동
6. 노회와 교회의 사회봉사

III. 교세 침체를 극복하려는 교회성장운동, 경안노회의 새로운 길 모색

1. 교인 감소
2. '예장300만성도운동'
3. '교회성장운동본부'
4. 경안노회의 새로운 길 모색 : '노회발전위원회'

IV. 경안노회 100주년(2022년) 준비

1. 준비위원회 조직(1997)
2. 실행

경안노회 설문조사를 통해 본
교회성장진단 현장분석

이 장 석 박 사

(이장석교회성장연구소)

1. 연구목적 및 조사내용

본 연구는 지난 2022년 1월 11일부터 23일까지 경안노회 소속교회 출석성도 가운데 2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었다.

첫째, 경안노회 소속교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얻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까지 목회자나 성도의 눈에서 해석된 경안노회 소속교회의 주관적인 모습이 아닌 사회과학적 통계를 통해 다양한 현상과 추이들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여 객관화된 기초자료가 된다.

둘째, 경안노회 소속교회 성도들의 일반적 특성과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신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효과적인 교회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경안노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건강한 교회성장에 대한 목회적 방향설정 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경안노회 소속교회 성도들이 교회성장에 필요한 교회내적요인과 교회외적요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효과적인 교회성장 전략에 필요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교회성장을 통해 교회재정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변수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다양한 조사의 대상을 아래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다.

문항명	문항내용	문항 수	누 계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개신교 신앙경력, 본교회 출석년수, 교회직분, 출석성도수, 2021년 재정결산 규모, 교회위치	9	9
코로나19 관련 신앙생활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점, 코로나19 시기에 교회 주일 예배형태, 예배에 관한 인식도, 코로나19 시기에 교회활동,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긍정적인 변화, 코로나19 종식 이후 중점에 둘 신앙생활	6	15
교회내적요인(1) 하나님 체험	1주간 성경읽기량, 하루기도량, 성령체험유무, 기도훈련 프로그램 운영정도, 각종 예배와 모임 참석정도, 개인신앙성장을 위한 노력방법	6	21
교회내적요인(2) 교회시스템	담임목사의 성도에 대한 은사와 관심에 따른 사역배치 여부, 교회조직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정도, 교회 각조	7	28

	직마다 사역방향 인식 정도, 당회 외 교회조직 잘 구성되어 있는 지 여부, 교회조직 구성원간 친밀도, 교회장점 1-3순위, 교회가 개선해야 할 사항,		
교회내적요인(3) 목회자 리더십	담임목사의 영적리더십에 대한 인식 정도, 담임목사의 기도와 성경말씀연구 인식 정도, 담임목사 설교에 대한 은혜정도, 담임목사의 목회비전과 중장기 성장계획 인식 정도, 담임목사의 교회사역에 대한 의사소통여부, 담임목사의 교회사역에 대한 성도위임 및 관리정도	6	34
교회내적요인(4) 양육훈련	교회 양육훈련에 대한 성도 인식 정도, 담임목사 양육훈련 강조여부, 양육훈련 참여여부, 양육훈련 참여시 만족도, 교회 양육사역위원회 구성여부, 양육사역리더 활동여부, 양육사역 리더 활동시 만족도, 만족하지 못한 이유(주관식), 양육프로그램 참석정도, 참석 미흡시 그 이유, 양육프로그램 진행 평가, 양육훈련 미흡시 효과적인 양육사역 위한 교회에 대한 건의사항(주관식), 양육사역 위한 담임목사에 대한 건의사항(주관식)	13	47
교회외적요인(1) 전도사역	교회 전도사역에 대한 성도 인식 정도, 담임목사 전도사역 강조여부, 전도사역 참여여부, 전도사역 참여시 만족도, 교회 전도사역위원회 구성여부, 전도사역리더 활동여부, 전도사역 리더 활동시 만족도, 만족하지 못한 이유(주관식), 전도프로그램 참석정도, 참석 미흡시 그 이유, 전도프로그램 진행 평가, 전도사역 미흡시 효과적인 전도사역 위한 교회에 대한 건의사항(주관식), 전도사역 위한 담임목사에 대한 건의사항(주관식)	13	60
교회외적요인(2) 선교사역	교회 선교사역에 대한 성도 인식 정도, 담임목사 선교사역 강조여부, 선교사역 참여여부, 선교사역 참여시 만족도, 교회 선교사역위원회 구성여부, 선교사역리더 활동여부, 선교사역 리더 활동시 만족도, 만족하지 못한 이유(주관식), 선교프로그램 참석정도, 참석 미흡시 그 이유, 선교프로그램 진행 평가, 선교사역 미흡시 효과적인 선교사역 위한 교회에 대한 건의사항(주관식), 선교사역 위한 담임목사에 대한 건의사항(주관식)	13	73
교회외적요인(3) 지역사회봉사사역	교회 지역사회봉사사역에 대한 성도 인식 정도, 담임목사 지역사회봉사사역 강조여부, 지역사회봉사사역 참여여부, 지역사회봉사사역 참여시 만족도, 교회 지역사회봉사사역위원회 구성여부, 지역사회봉사사역리더 활동여부, 지역사회봉사사역 리더 활동시 만족도, 만족하지 못한 이유(주관식), 지역사회봉사프로그램 참석정도, 참석 미흡시	13	86

	그 이유, 지역사회봉사프로그램 진행 평가, 지역사회봉사사역 미흡시 효과적인 지역사회봉사사역 위한 교회에 대한 건의사항(주관식), 지역사회봉사사역 위한 담임목사에 대한 건의사항(주관식)		
교회외적요인(4) 평신도 동역화	담임목사 평신도 동역화 목회비전과 철학여부, 담임목사 평신도사역자 은사개발 훈련여부, 담임목사 평신도 동역화를 위한 동기부여여부, 교회의 평신도사역에 대한 장기적 계획여부, 교회의 평신도사역 적극지원여부, 교회의 평신도사역 세분화여부	6	92
교회와 담임목사에 대한 건의사항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교회나 담임목사에 대한 건의사항(주관식)	1	93

2. 연구방법 및 자료분석

1) 표본설계(Sample Design)

구 분	경안노회 100주년 교회진단에 대한 성도들의 설문조사
조 사 대 상 자	경안노회 소속교회 출석성도
표 본 크 기	203명(유효표본), 설문응답자 총 217명 중 설문응답 미흡자 14명은 제외됨
조 사 방 법	교회방문을 통한 설문조사법
표본 추출 방법	층화추출법과 무작위 추출법(Random Sampling)
표 본 오 차	±3.1%(95% 신뢰구간)

2) 실사설계(Fieldwork Design)

① 접근방법:

- 1차 - 경안노회 소속교회의 담임목사 인솔하에 안동교회에 집합하여 개별설문
- 2차 - 면접원의 경안노회 소속교회 방문에 의한 개별설문

② 자료수집도구: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③ 실사기간: 2022년 1월 11일(화) 1차 설문, 1월 23일(주일) 2차 설문

④ 설문진행: 경안노회 소속교회의 담임목사 인솔하에 설문조사에 참석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경안노회 서기인 강석호 목사의 사회를 통해 주)이장석교회성장연구소 소장인 이장석 목사의 설문문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자료처리(Data Processing)

수집된 자료(Raw)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IBM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Program으로 전산처리하였다.

4) 본 연구에 활용된 통계기법

본 연구는 경안노회 소속교회의 교회진단을 위한 [일반적 특성]과 [코로나19 관련 신앙생활] 등 다양한 변수들의 양태를 조사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교회성장 진단에 필요한 [교회내적요인] 4가지와 [교회외적요인] 4가지의 변수들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코로나19 종식 이후,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성장을 통한 자립구조를 갖추기 위해 순차적으로 구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측정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안노회 소속교회 성도들의 [일반적 특성]으로써 성별, 연령, 학력, 개신교 신앙생활년수, 출석교회 출석년수, 직분, 출석성도 수, 2021년 재정결산 규모, 교회위치 변수들이다.

두 번째, [코로나19 관련 신앙생활]에 대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운 점(복수 응답 2가지 선택), 코로나19 급증 시기에 주일예배방식, 예배에 관한 인식,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회활동사항(해당사항 모두 선택),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긍정적인 변화(중복응답 1-2순위 선택), 코로나19 종식 이후 신앙생활 중점사항(중복응답 1-2순위 선택) 변수들이다.

세 번째, 교회내적요인 중에 [하나님 체험]에 대한 것으로 1주간 성경읽기, 하루동안 기도하는 시간, 성령체험 유무, 기도훈련 프로그램 운영 정도, 각종 예배와 모임에 참여 정도, 신앙생활 성장을 위한 방법 변수들이다.

네 번째, 교회내적요인 중에 [교회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담임목사의 교인들 은사에 따른 사역배치 정도, 담임목사와 교회 각 조직간의 협조체계 정도, 교회 각 조직의 사역방향 인식 정도, 당회 등 교회 조직의 구성정도, 교회 각 조직 구성원간의 친밀정도, 소속교회의 장점(중복응답 1-3순위 선택), 교회의 개선해야 할 사항(해당사항 모두 선택) 변수들이다.

다섯 번째, 교회내적요인 중에 [목회자 리더십]에 대한 것으로 담임목사에 대한 영적리더십 인식 정도, 담임목사의 기도와 성경말씀 연구 인식 정도, 담임목사의 설교에 대한 은혜정도, 담임목사의 목회비전과 중장기 성장계획 인식 정도, 담임목사의 교회사역에 대한 의사소통 여부, 담임목사의 교회사역에 대한 성도 위임 및 관리정도 변수들이다.

여섯 번째, 교회내적요인 중에 [양육훈련]에 대한 것으로 교회 양육훈련 성도 인식 정도, 담임목사 양육훈련 강조여부, 양육훈련 참여여부, 양육훈련 참여시 만족도, 교회 양육사역위원회 구성여부, 양육사역리더 활동여부, 양육사역리더 활동시 만족도, 만족하지 못한 이유(주관식), 양육프로그램 참석 정도, 참석미흡시 그 이유, 양육프로그램 진행평가, 양육훈련 미흡시 효과적인 양육사역 위한 교회 건의사항(주관식), 양육사역 위한 담임목사에 대한 건의사항(주관식) 변수들이다.

일곱 번째, 교회외적요인 중에 [전도사역]에 대한 것으로 교회 전도사역 성도 인식 정도, 담임목사 전도사역 강조여부, 전도사역 참여여부, 전도사역 참여시 만족도, 교회 전도사역위원회 구성여부, 전도사역리더 활동여부, 전도사역리더 활동시 만족도, 만족하지 못한 이유(주관식), 전도프로그램 참석 정도, 참석미흡시 그 이유, 전도프로그램 진행평가, 전도사역 미흡시 효과적인 전도사역 위한 교회 건의사항(주관식), 전도사역 위한 담임목사에 대한 건의사항(주관식) 변수들이다.

여덟 번째, 교회외적요인 중에 [선교사역]에 대한 것으로 교회 선교사역 성도 인식 정도, 담임목사 선교사역 강조여부, 선교사역 참여여부, 선교사역 참여시 만족도, 교회 선교사역위원회 구성여부, 선교사역리더 활동여부, 선교사역리더 활동시 만족도, 만족하지 못한 이유(주관식), 선교프로그램 참석 정도, 참석미흡시 그 이유, 선교프로그램 진행평가, 선교사역 미흡시 효과적인 선교사역 위한 교회 건의사항(주관식), 선교사역 위한 담임목사에 대한 건의사항(주관식) 변수들이다.

아홉 번째, 교회외적요인 중에 [지역사회봉사사역]에 대한 것으로 교회 지역사회봉사사역 성도 인식 정도, 담임목사 지역사회봉사사역 강조여부, 지역사회봉사사역 참여여부, 지역사회봉사사역 참여시 만족도, 교회 지역사회봉사사역위원회 구성여부, 지역사회봉사사역리더 활동여부, 지역사회봉사사역리더 활동시 만족도, 만족하지 못한 이유(주관식), 지역사회봉사프로그램 참석 정도, 참석미흡시 그 이유, 지역사회봉사프로그램 진행평가, 지역사회봉사사역 미흡시 효과적인 지역사회봉사사역 위한 교회 건의사항(주관식), 지역사회봉사사역 위한 담임목사에 대한 건의사항(주관식) 변수들이다.

열 번째, 교회외적요인 중에 [평신도 동역화]에 대한 것으로 담임목사 평신도 동역화 목회비전과 철학여부, 담임목사 평신도사역자 은사개발 훈련여부, 담임목사 평신도 동역화를 위한 동기부여여부, 교회의 평신도사역에 대한 장기적 계획여부, 교회의 평신도사역 적극 지원여부, 교회의 평신도사역 세분화여부 변수들이다.

3. 연구의의 및 한계점

1) 연구의의

본 연구는 전문적인 자료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표본오차 $\pm 3.1(95\%)$ 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변수들의 분석과 실제적인 진단에 주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경안노회 소속 교회 성도들의 일반적 특성, 코로나19 관련 신앙생활, 교회내적요인(하나님 체험, 교회시스템, 목회자 리더십, 양육훈련) 인식 정도, 교회외적요인(전도사역, 선교사역, 지역사회봉사사역, 평신도 동역화) 인식 정도, 교회와 담임목사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가 갖는 의의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경안노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최초의 교회성장 진단에 대한 성도들의 설문보고서라는 점이다. 경안노회 소속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규격화된 설문지를 통해 설문을 받고서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이다.

둘째, 경안노회 소속교회의 객관적인 실태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현재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의 198개 교회가 소속된 경안노회는 지난 100년 동안 노회 개척 시기부터 지속적인 교회성장과 부흥을 위해 힘써 왔다. 하지만 이를 보다 객관적인 시각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신학적 작업과 연구가 결여되어 있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충분한 객관적 이해를 형성하도록 해 주었다.

셋째, 경안노회 소속교회 성도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코로나19 관련 신앙생활, 교회내적요인(하나님 체험, 교회시스템, 목회자 리더십, 양육훈련) 인식 정도, 교회외적요인(전도사역, 선교사역, 지역사회봉사사역, 평신도 동역화) 인식 정도 외 교회와 담임목사에 대한 건의사항에 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본 설문결과를 통해 경안노회 소속교회 성도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다양한 신앙생활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교회내적요인과 외적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성향을 깨닫게 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교회성장을 통해 교회 재정자립을 위한 사역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설문분석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미래지향적인 사역방향과 효과적인 교회사역운영 방안 등에 대한 전략적인 제안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2) 연구의 한계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다양한 교회 참여가 어려웠으며, 그에 따른 설문 응답자수가

미흡하여 보다 체계적이면서도 균형잡힌 설문 응답자 확보에 아쉬움이 남았다. 특히 본 설문조사는 교회성장 진단을 목적을 두고 있기에, 교회성장에 적합한 기준의 교회와 성도들을 표본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제약조건으로 인해 설문조사가 가능한 범주에서 실시하였다.

그래서 교차통계분석(Cross-tab)을 활용한 기술통계량 분석과 분산분석(ANOVA)의 통계기법, 그리고 회귀분석(Regression)의 통계기법을 활용한 심층진단은 제외하고서, 교회성장 진단을 위한 기초분석 방법으로써 빈도분석 위주로 설문분석을 실행하였다.

4. 설문분석 결과와 대안

1) 교회성장에 있어서 교회내적요인과 교회외적요인의 의미

본 설문조사에서는 JSICG(이장석교회성장연구소) 교회성장모형을 중심으로 교회성장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내적요인과 교회외적요인을 활용하여 경안노회에 소속된 교회들의 성장성을 진단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교회내적요인과 교회외적요인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내적요인과 교회성장요인 간의 관계에서 교회외적요인이 매개효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교회내적요인과 교회성장요인 간의 관계에서 교회외적요인이 매개효과로 작용하였다는 의미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평신도의 동역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교회내적요인과 교회외적요인이 교회성장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경안노회 소속교회들이 교회내적요인만을 강화하여 교회성장요인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내적요인을 강화한 이후에 교회외적요인을 강화시키고서 이러한 결과로 교회성장요인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교회성장학의 관점에서 교회외적요인이 교회성장에 어떠한 역할로 작용하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둘째, 그동안 1천여 개 이상의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성장 진단 컨설팅을 수행해 왔던 JSICG(이장석교회성장연구소)에서는 교회내적요인이 교회외적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본 설문조사의 교회진단 준거의 틀로써 교회내적요인과 교회외적요인을 활용하였다.

그동안 목회자의 리더십, 효과적인 교회시스템, 활성화된 양육훈련, 하나님 체험과 같은 교회내적요인이 전도사역, 선교사역, 지역사회봉사사역, 평신도 동역화와 같은 교회외적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국내외 교회성장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저술한 다양한 문헌을 통해

서도 잘 알려진 바이다(Wagner¹⁾, 2006; Richardson²⁾, 2008; 옥한흠³⁾, 2002; Kraemer⁴⁾, 1994).

한국교회 중에 성장하는 교회들은 대체로 교회내적요인 중에서 효과적인 교회시스템과 하나님 체험을 강화하면서 교회외적요인을 확대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의 교회외적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평신도의 동역화를 위해서는 목회자의 리더십, 효과적인 교회시스템, 활성화된 양육훈련, 하나님 체험과 같은 교회내적요인의 전 영역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서 평신도의 동역화를 확대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전도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 체험과 같은 교회내적요인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서 체계적인 전도사역을 확대해 나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지역사회봉사사역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회시스템과 같은 교회내적요인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서 지역사회봉사사역을 확대해 나갔다. 선교사역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회시스템, 하나님 체험과 같은 교회내적요인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서 선교사역을 확대해 나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교회내적요인이 교회성장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교회 목회자의 리더십, 효과적인 교회시스템, 활성화된 양육훈련, 하나님 체험과 같은 교회내적요인이 교회양적성장과 교회질적성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Richardson⁵⁾, 2008; 윤응식⁶⁾, 2009; 김제선⁷⁾, 2011).

한국교회들은 대체적으로 교회내적요인 중에서 효과적인 교회시스템, 하나님 체험 등을 강화하면서 교회성장요인을 확대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의 교회성장요인을 면밀히 살펴보면, 효과적인 교회시스템과 같은 교회내적요인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서 교회양적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교회질적성장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회시스템, 하나님 체험과 같은 교회내적요인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서 교회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 1) Wagner, C. Peter. 『교회성장학개론』. 이재범 역. 서울: 나단출판사, 2006.
 - 2) Richardson, Ronald. 『목회는 관계리더십이다』. 유재성 역.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2008.
 - 3)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 4) Kraemer, Hendrik. 『평신도 신학과 교회갱신』. 유동식 역. 서울: 평신도신학연구소, 1994.
 - 5) Richardson, Ronald. 『교회는 관계 시스템이다』. 유재성 역.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2008.
 - 6) 윤응식. “새신자 양육을 통한 교회성장방안 연구.” 목회학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9.
 - 7) 김제선. “다문화 가정 사역을 통한 교회성장전략 연구.” 신학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11.

마지막으로, 교회외적요인이 교회성장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 한국교회의 평신도의 동역화, 체계적인 전도사역, 지역사회봉사사역, 선교사역과 같은 교회외적요인이 교회양적성장과 교회질적성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옥한흠, 2002; 최광영⁸⁾, 2009; 노득용⁹⁾, 2012; 최순남¹⁰⁾, 2007).

한국교회들은 대체로 교회외적요인 중에서 평신도의 동역화와 체계적인 전도사역, 그리고 지역사회봉사사역과 선교사역을 강화하면서 교회성장요인을 확대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의 교회성장요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교회질적성장을 위해서는 평신도의 동역화와 체계적인 전도사역, 그리고 선교사역과 같은 교회외적요인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서 교회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비해서 단지 한국교회가 교회양적성장만을 위해서 교회외적요인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은 실제로 교회성장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내적요인과 교회외적요인을 상호보완적으로 잘 개발하고 활성화시켜서 목회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2) 교회내적요인 분석 결과

[표-20] 교회내적요인 분석 결과

변수	특성	비율(%)	평가치(점)
교회내적요인(1) 하나님 체험	1주간 성경읽기량(30분이상)	46.3	46
	1일 기도량(30분이상)	39.9	40
	성령체험(있다)	45.81	46
	기도훈련프로그램 운영(긍정답변)	29.06	29
	각종 예배모임 참여(긍정답변)	76.85	77
평균		47.6	48
교회내적요인(2) 교회시스템	담임목사의 성도 은사와 관심에 따라 사역배치(긍정답변)	49.25	49

8) 최광영. “도시교회의 성장을 위한 전도주일 프로그램 사례분석과 방안.” 신학박사 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09.

9) 노득용. “선교지향적 교회의 예배회복을 통한 교회성장 방안 연구.” 목회학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2.

10) 최순남. “지역교회로의 분립개혁을 통한 교회성장 방안.” 목회학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7.

	교회 조직간 유기적 협조체계(긍정답변)	64.53	65
	교회 조직마다 사역방향 인식(긍정답변)	59.11	59
	교회 조직 구성 정도(긍정답변)	62.56	63
	교회 조직 구성원간 친밀도(긍정답변)	60.59	61
평균		59.21	59
교회내적요인(3) 목회자 리더십	담임목사의 영적리더십에 대한 인식(긍정답변)	77.34	77
	담임목사의 기도와 성경말씀연구 인식(긍정답변)	78.33	78
	담임목사 설교에 대한 은혜(긍정답변)	74.88	75
	담임목사의 목회비전과 중장기성장계획 인식(긍정답변)	70.93	71
	담임목사의 교회사역에 대한 의사소통(긍정답변)	67.48	67
	담임목사의 교회사역에 대한 성도위임 및 관리(긍정답변)	70.94	71
평균		73.32	73
교회내적요인(4) 양육훈련	교회 양육훈련에 대한 성도 인식(긍정답변)	35.97	36
	담임목사 양육훈련 강조(긍정답변)	47.29	47
	양육훈련 참여(긍정답변)	43.84	44
	양육훈련 참여시 만족도(긍정답변)	66.29	66
	교회 양육사역위원회 구성(긍정답변)	27.59	28
	양육사역 리더 활동(긍정답변)	23.15	24
	양육사역 리더 활동시 만족도(긍정답변)	57.44	57
	양육훈련 프로그램 참석(긍정답변)	17.73	18
	양육훈련 프로그램 운영(긍정답변)	24.63	25
평균		38.21	38

3) 교회외적요인 분석 결과

[표-21] 교회외적요인 분석 결과

변수	특성	비율(%)	평가지(점)
교회외적요인(1) 전도사역	교회 전도사역에 대한 성도 인식(긍정답변)	43.35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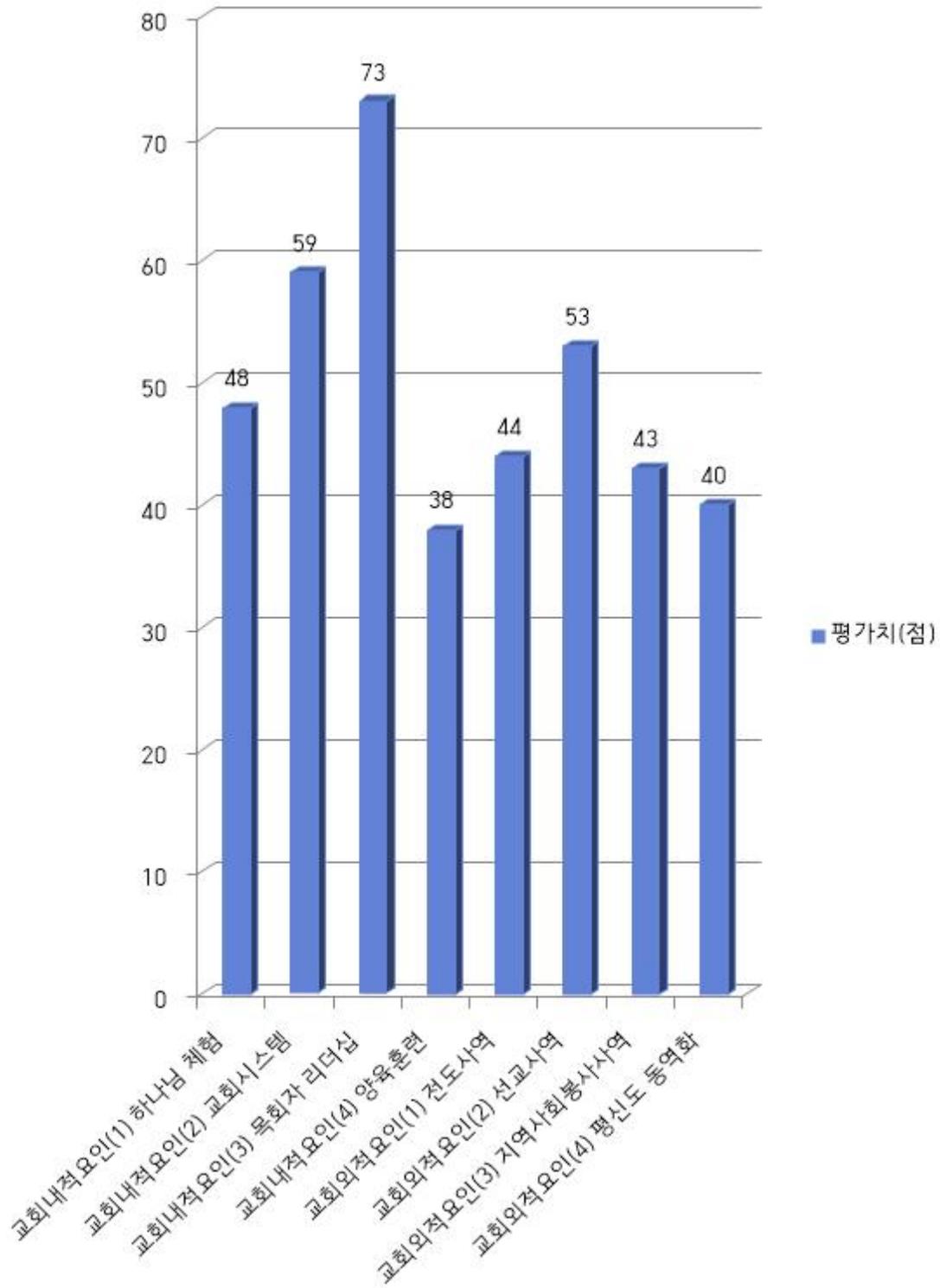
	담임목사 전도사역 강조(긍정답변)	65.02	65
	전도사역 참여(긍정답변)	60.1	60
	전도사역 참여시 만족도(긍정답변)	46.72	47
	교회 전도사역위원회 구성(긍정답변)	45.32	45
	전도사역 리더 활동(긍정답변)	30.54	31
	전도사역 리더 활동시 만족도(긍정답변)	53.22	53
	전도사역 프로그램 참석(긍정답변)	20.2	20
	전도사역 프로그램 운영(긍정답변)	32.02	32
	평균	44.1	44
교회외적요인(2) 선교사역	교회 선교사역에 대한 성도 인식(긍정답변)	60.58	61
	담임목사 선교사역 강조(긍정답변)	69.95	70
	선교사역 참여(긍정답변)	67.98	68
	선교사역 참여시 만족도(긍정답변)	58.69	59
	교회 선교사역위원회 구성(긍정답변)	62.07	62
	선교사역 리더 활동(긍정답변)	29.56	30
	선교사역 리더 활동시 만족도(긍정답변)	61.67	62
	선교사역 프로그램 참석(긍정답변)	18.72	19
	선교사역 프로그램 운영(긍정답변)	44.33	44
	평균	52.62	53
교회외적요인(3) 지역사회봉사사역	교회 지역사회봉사사역에 대한 성도 인식(긍정답변)	46.8	47
	담임목사 지역사회봉사사역 강조(긍정답변)	60.59	61
	지역사회봉사사역 참여(긍정답변)	53.69	54
	지역사회봉사사역 참여시 만족도(긍정답변)	53.21	53
	교회 지역사회봉사사역위원회 구성(긍정답변)	36.95	37
	지역사회봉사사역 리더 활동(긍정답변)	26.11	26
	지역사회봉사사역 리더 활동시 만족도(긍정답변)	62.26	62
	지역사회봉사사역 프로그램 참석(긍정답변)	12.31	12
	지역사회봉사사역 프로그램 운영(긍정답변)	34.98	35
	평균	42.99	43
교회외적요인(4) 평신도 동역화	담임목사 평신도 동역화 목회비전과 철학(긍정답변)	56.15	56
	담임목사 평신도 사역자 은사개발훈련(긍정답변)	34.98	35
	담임목사 평신도 동역화	47.78	48

	동기부여(긍정답변)		
	교회의 평신도사역에 대한 장기적계획(긍정답변)	36.45	37
	교회의 평신도사역 적극지원(긍정답변)	37.93	38
	교회의 평신도사역 세분화(긍정답변)	28.57	29
	평균	40.31	40

4) 교회성장 대안

변수	평가치(점)
교회내적요인(1) 하나님 체험	48
교회내적요인(2) 교회시스템	59
교회내적요인(3) 목회자 리더십	73
교회내적요인(4) 양육훈련	38
평균	55
교회외적요인(1) 전도사역	44
교회외적요인(2) 선교사역	53
교회외적요인(3) 지역사회봉사사역	43
교회외적요인(4) 평신도 동역화	40
평균	45

평가치(점)



경안노회 소속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성장 진단 설문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설문 대상자를 통해 파악된 연령별 성도 비율 중에 60대 이상이 64.54%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성장전략 못지않게, 반드시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교회사역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에 국토연구원 이보경 책임연구원이 워킹페이퍼 ‘2040년 장래인구 분포 전망 연구’를 통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정합성을 가지는 소지역(500m 격자) 단위 장래인구 분포를 전망하고 2040년까지 격자별·지역별 인구증감 수준 및 인구구조 변화를 추정했다.

이 연구원은 격자 단위 장래인구 분포 전망 결과를 시·군·구 단위로 집계했을 때 2040년에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다. 반면에 가장 적은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경상북도 울릉군이며, 그 다음으로 경상북도 영양군으로 추정했다.

2040년 지자체 인구가 5만 명 미만의 시·군·구는 총 61개로 2019년 8월 주민등록 기준 52개보다 9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5만 명 이하로 감소할 지자체 중에 경상북도 지역으로는 예천군과 의성군으로 예상했다.

2040년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약 34%로 2020년 16%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에서 2040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그 비율이 약 58%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5개 지역 중에 경상북도 지역으로는 군위군(58%), 의성군(57%), 청도군(55%), 청송군(55%)으로 해당 지역의 장래인구 역시 5만 명 미만으로 인구 규모가 적고 고령화 비율이 높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경안노회가 포함된 경상북도 북부지역이 고령화인구 증가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라는 목회환경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다음세대와 60대 이상 고령화인구에 대한 다각적인 교회성장전략과 목회사역에 대해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둘째, 교회내적요인 4가지 요소에 대한 평가치는 하나님 체험이 48점, 교회시스템이 59점, 목회적 리더십이 73점, 양육훈련이 38점, 4가지 요소 전체 평가치 평균점수는 5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외적요인 4가지 요소에 대한 평가치는 전도사역이 44점, 선교사역이 53점, 지역사회봉사사역이 43점, 평신도 동역화가 40점, 4가지 요소 전체 평가치 평균점수는 45점이었다.

교회성장의 우선순위에 따라 교회내적요인(하나님 체험, 교회시스템, 목회적 리더십, 양육훈련)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 교회외적요인 즉, 전도사역과 선교사역, 지역사회봉사사역과 평신도 동역화를 확장해야 교회사역을 효율적으로 감당해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효과적인 사역일지라도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안노회 소속교회가 처한 지역적 특성과 성도들의 일반적 특성 등이 갖고 있는 제약적 조건과 단점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무엇보다도 양육훈련이 시급한데, 그동안 경안노회 차원에서 연중행사 위주로 진행해 왔던 양육사역을 개별 교회에 적합하도록 양육교재 개발, 체계적인 훈련방법, 전문화된 진행방식 등 맞춤형 사역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 교회내적요인 중에서 목회적 리더십 개발을 위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기 이전부터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훈련과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맞춤형 목회전략을 수립하여, 올해 안으로 개별 교회차원에서 실천가능한 것부터 수행해나가야 하겠다.

넷째, 경안노회와 본 교회성장 진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이장석교회성장연구소(JSICG)간에 중장기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교회성장 협력을 위한 전략적인 제휴를 체결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겠다.

지난 100년간의 건강한 교회성장과 발전을 이룬 경안노회가 향후 100년, 그 이상 동안 계속해서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노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본 연구소와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 사료된다.